ECONOMY 경제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광남일보

민관이 함께 키운다…호남권 기술창업 생태계 확산

중기부, '웰컴 투 팁스' 광주서 개최…100여곳 교류 현장평가 거쳐 우수기업 선정…연말 통합 본선무대

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 빛고을창업 를 개최했다.

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 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 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호남 스테이션에서 '호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 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사가 직접 교류, 수도권에 집중된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 인 거래·스마트 경매 시스템 등의 기술력

호남권 유망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를 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현장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이 수

치한 해삼 양식・가공 전문기업 ㈜해신(대 표 김운봉) 이 이름을 올렸다.

해신은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해삼 양 식 체제를 구축한 기업으로 단순히 양식을 념어 인공지능(AI) 및 시물인터넷(IoT)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맞물린 '팁스' 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모니터링 기술로 압도적 품질과 생산성을 자랑한다.

> 우수 기업에는 나주에 위치한 위즈팜 (대표 염건웅)이 선정됐다. 디지털 축산 혁신 기업인 위즈팜은 AI 기반 비접촉 생 체 데이터 분석 기술로 구현한 한우 온라 을 갖추고 있다.

장려 기업은 광주의 산업용 로봇 제조기 업 ㈜쉐어플랫(대표 이지훈)에게 돌아갔 다. 쉐어플랫은 협업형 물류 이송 시스템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 여됐다. 최우수 기업에는 전남 고흥에 위 기술이 적용된 물류 자동화 기능의 자율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호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동로봇(AMR)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서다시 한번 투자설명회를 펼치게 된다.

서 선정된 우수기업과 함께 연말에 열리는 통합 본선 무대에 올라 전국 투자사 앞에 지 네트워킹, 선배 팁스기업의 멘토링 등

또 팁스 운영사가 자신의 주요 투자 분

선정된 우수기업은 동남・충청・대경권에 야 및 전략 등을 소개하는 운영사 설명회, 팁스 참여 희망 기업과 운영사 간 투자 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팁스 운영사와의 만 남이 호남권 창업기업들에게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의 디딤돌이 됐기를 바란다"고 송대웅 기자 sdw0918@

순천서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

전남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시동

전남도는 6~7일 이틀간 순천만생태문 화교육원에서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 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처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상호 협력 퍼스(Startup Campus) △오픈이노베이 과 성장을 이끌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 을 스타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페스티 기대된다. 벌에는 전남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 자, 투자사, 대학생 등 3000여명이 참여 할 예정이다.

개막식과 함께 5개 분야 60개 부스 전 를 다질 예정이다. 시, 기업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투자상담

회,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히 △창업·기업지원 컨설팅 4개 프로 이번 행사는 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벤 _ 그램(500개 사 상담) △구글 스타트업 캠 션 세션 △투자자 미팅 등 실질적 지원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참가지들의 호응이

> 6일 개막식에는 주요 내빈과 벤처창업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혁신성장 의지

> >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당당한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작협이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순천만에코촌에서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하역작업 효율 높인다

내년부터 장비 공동사용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작업 효율 회를 위한 운영사 간 하역장비 공동사용 시대가 열린다.

항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제고를 위해 KIT㈜(한국국제터미널)와 GWCT㈜(광 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연말까지 2 다.

회 이상 24열 갠트리크레인 공동사용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 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고장으로 방치된 KIT의 22열

갠트리 크레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24열 크레인 공동사용이 이뤄지면 대 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 형선박이 접안했을 경우 크레인 3기가 한 꺼번에 투입할 수 있게 돼 하역시간이 단 축되고 선사가 선호하는 항만이 될 수 있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제도 ·계획변경 시 기준 완화 등 협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순천만 에코촌에서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제 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양경제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자유 구역청장협의회는 전국 9개 자유구역청 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 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경제자 유구역 선수금 보증서 관련 지침 개정 등 여러 현안을 집중 협의했으며, 이같은 내 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위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산업통 상자원부에 제출됐으며,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 역이 국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 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제 자유구역청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전국 9개 경제 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GICON, 3차 기업 유치 설명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문화산업 투 자진흥지구 3차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

이번 설명회는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 지구의 가치와 투자 기회를 알리고, 콘텐 츠 기업들의 광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5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DMTS) '전시장 내 오픈 세미나 형식으 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인프 라,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광주 이전 및 창업에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직후에는 투자진흥지구 홍보부 스에서 1대 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기 업별 상황에 맞춘 이전·창업 절차와 지원 제도 안내가 이뤄지며, 실무 중심의 정보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홍보부스는 5일부터 7일까지 박람회 기 간 내 상시 운영된다. 방문객은 투자진흥 지구의 주요 인프라, 입주 절차, 조세 감 면, 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자세히 안 내받을 수 있다.

또한 초기 창업 준비와 사업화 전략 컨설팅, 현장 참여 기업 대상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